



부활 제2주일 곧,
하느님의 자비 주일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와는 다릅니다 (요한 14,27)

가톨릭마산

믿으십시오, 그러면 행복해질 것입니다

요즘 세상과 비어가는 성당을 바라보면, 코로나라는 전염병만 퍼진 게 아니라, 사람에 대한 세상에 대한 그리고 믿음에 대한 불신도 참 많이 퍼져 간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사실 돈 없어도 사랑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으며, 건강하지 않아도 사랑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습니다. 내가 조금 더 고생하고, 내가 조금 더 이해하겠노라고 마음을 먹으면 됩니다. 그러나 믿음이 깨어지면 더 이상 사랑할 수 없게 되고, 용서할 수 없게 됩니다.

사랑과 용서가 없는 곳이 바로 지옥이 아닐까요? 오늘 예수님께서서는, 두려워 문을 잠가 놓고 지옥 같은 삶을 사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시어, 다시 믿음을, 그리고 용서를 통한 신뢰를 불러일으키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자신들을 살리는 유일한 길은 바로 믿음이라는 가르침을 주십니다. 왜 토마스에게 “네 손을 뻗어 내 옆구리에 넣어 보아라”(요한 20,27)고 하셨겠습니까? “믿어라. 보이는 것 너머의 그것을 믿어라. 그 믿음이 바로 너를 구원할 것이다”라는 가르침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보이는 것에만 매달린 믿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믿음, 곧 보지 않고도 믿을 수 있는 그 믿음을 지니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행복이라고 알려주십니다.

사실 보이는 것만이 전부인 사람은 보이는 것만을 살 뿐입니다. 그래서 그 보이는 것의 있고 없음에 난리를 칠 것입니다. 근데 보십시오. 어제 있던 돈이, 어제 있던 젊음과 건강이, 오늘도 내일도 앞으로도 영원할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그것들은 모두 사라질 것들입니다. 결국 보이는 것 모두는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것들입니다. 그러니 너무 보이는 것들에 믿음을 두지 마십시오. 참으로 보지 않고도 믿을 줄 아는 것, 그것이 진짜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제대로 된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만이 우리의 영혼을 제대로 치유할 수 있고 우리를 전혀 새롭게 살 수 있게 만드는 유일한 근원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인간이 인간을 사랑할 수 있고, 인간이 인간을 희망할 수 있으며, 인간과 인간 사이에 평화를 노래할 수 있는 유일한 바탕도 바로 믿음입니다. 그러니 믿으십시오. 그러면 행복해질 것입니다. 그러나 믿지 못하면 그것이 바로 불행입니다.

이 불신의 시대에 예수님의 부활은 바로 희망에 대한 증거이며, 이 믿음에 대한 위대한 표지입니다. 그러니 오늘 복음에서 하신 말씀 “너는 나를 보고서야 믿느냐?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행복하다.”(요한 20,29)라는 말씀을 늘 기억하고, 되새기며 살아가는 그런 신앙인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강병도 파비아노 신부 | 대산본당 주임



제 1 독 서	사도 4,32-35
화 답 송	◎ 주님은 좋으신 분, 찬송하여라. 주님의 자애는 영원하시다.
제 2 독 서	1요한 5,1-6
복 음	요한 20,19-31

주일 진레



살신성인 殺身成仁의 삶

‘살신성인’은 옳은 일을 위하여 자기 몸을 희생한다는 말이다.

나라를 지키려고, 다른 사람의 생명을 구하려고, 또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 목숨을 바쳐 이렇게 살신성인의 삶을 산 자들이 많다.

의사 義士 안중근 安重根 토마스는 천주교의 영향으로 민족 계몽사업을 위해 활동했으나, 일제의 침략이 국권을 뒤흔드는 수준으로 확대되자 항일 무장 투쟁으로 노선을 바꾸었다. 그리고 구국일념의 정신으로 1909년 대한독립군의 참모 중장으로서 중국 하얼빈역에서 초대 조선 통감 이토 히로부미를 권총 3발로 저격하여 처단하고, 체포되고 사형 선고를 받아 1910년 31세에 여순 감옥에서 순국했다.

조선의 두 번째 방인 邦人 사제 최양업 토마스 신부의 사목활동은 험난하기 그지없었다. 충청북도 진천 배나무 고개 배티 梨峙를 거점으로 천안 이남의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지방의 127개 공소를 한 해 동안 7,000리(약 2,800km), 즉 서울과 부산을 세 번 걸어서 왕복하는 활동을 11년 6개월간 했다. 경신박해(庚申迫害, 1859~1860) 때에는 체포되어 얼마간 감금 생활을 하기도 했으며, 베르뇌(S.F. Berneux, 1814~1866) 주교에게 사목활동을 보고하기 위해 서울로 가던 중, 문경의 교우촌에서 누적된 과로와 장티푸스로 인해 1861년 6월 15일 40세에 세상을 떠났다.

의인 義人 이수현 李秀賢은 일본 유학 중 2001년 1월 26일 오후 7시 15분경 도쿄 신오쿠보 新大久保역에서 추락한 취객을 구조하기 위해 뛰어들었다가, 선로로 들어오는 열차에 치여 일본인 사진작가와 함께 27세에 목숨을 잃었다. 그 후 이수현은 한일 우호의 상징 인물이 되었고, 그에 대한 한일 합작 영화 ‘너를 잊지 않을 거야(あなたを忘れない)’가 제작되어 2007년~2008년 일본과 한국에서 개봉되었다. 올해로 20주기를 맞아 도쿄와 부산에서 추모식을 거행하면서, 고인의 뜻을 기려 한국과 일본이 현재의 갈등을 극복해 공생의 관계가 되길 기원했다.

요즈음 우리 주변에도 살신성인의 삶을 사는 자들이 많다.

소중한 생명을 살리려고 험지에서 일하는 구조대원들과 낙태 수술을 하지 않는 산부인과 의사들이다. 그뿐만 아니라 정의롭게 살고자 촌지나 청탁을 거절하는 공무원, 참사랑 실천으로 죽어가는 사람에게 장기 이식을 하는 자, 또 주일을 거룩히 지내기 위해 일요일에 가게 문을 닫고 미사에 참석하며 봉사하는 자, 이웃을 구하려는 이수현처럼 목숨을 내놓는 자이다.

죽음을 이기고 되살아나신 예수님이야말로 철저한 살신성인의 삶을 사셨다. “친구들을 위하여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요한 15,13)라고 하신 말씀대로, 죄도 없으신 분이 죄인으로 몰려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땅에 묻히셨다. 그리고 부활하여 인류에게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해 주셨다.

우리는 주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인생이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살신성인으로 살다 죽는 것이 곧 영원히 사는 것임을 알았다. 그래서 우리도 밀알처럼 죽어 열매를 맺고, 소금처럼 녹아 맛을 내며, 초처럼 태워져 빛을 내야 한다. 이것이 부활 신앙이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코로나19와 함께 살아가면서 가경자 可敬者 최양업 신부가 탄생 200주년을 맞아 그의 시복을 기원하고 있다. 한국의 사도 바오로라고 불릴 만큼 선교 열정과 뛰어난 성덕으로 착한 목자의 모습을 보여주었으며, 한국 천주교 초석을 놓아준 ‘땀의 순교자’ 최양업 신부를 본받아 우리도 살신성인의 삶을 살아 교회 발전에 이바지하도록 하자.



최봉원 야고보 신부(교구 총대리)

천주교 마산교구청 신축공사

기존 건물 철거

교구청 신축 추진위원회(위원장: 총대리 최봉원 야고보 신부)에서는 교구민들의 염원을 담은 교구청 신축공사 기공식(6월 19일)을 위해 사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신축공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건축담당 신부와 감독관을 임명하였고, 부지 내 도로 정리와 비산먼지 방진막과 가림막을 설치하였으며, 석면해체를 시작으로 기존 건물의 철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부님은 “교구청 신축공사는 이제 시작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이 공사가 하느님의 축복 속에 아무런 사고 없이 잘 마무리 되도록 교우 여러분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기도 중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당부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교구민들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차후에 전 교구민이 함께 ‘교구청 신축을 위한 기도문’을 바치며, 본격적으로 모금 활동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건설업체 지명원 공모

천주교 마산교구청 신축공사 업체 선정을 위한 지명원을 접수합니다.

- 기간: 4월 12일(월)~19일(월) 17:00까지
 - 접수: 교구청 신축 추진위원회(055·249·7121, sinchuk3@naver.com)
창원시 마산합포구 오동북16길 27 천주교 마산교구청 3층
- ※ 자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천주교 마산교구 홈페이지 참조



수산성당

누가 뭐래도 올해는 바로 우리가 주인공 수산성당

황광지 가타리나

성 김대건 안드레아 히년에도 본당설립 25주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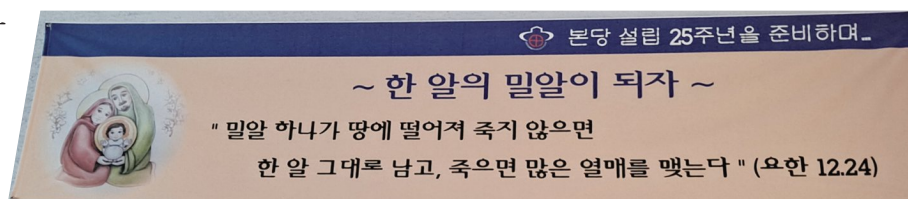
올해는 '수산성당의 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본당설립 25주년을 맞는 데다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 탄생 200주년 희년을 맞이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본당주보가 '성 김대건 안드레아'이니 남다르지 않을 수 없다.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 위축되긴 했지만, 본당 교우들은 어느 때보다 힘차고 밝은 봄을 살고 있다.

수산성당에 들어서면 위층 발코니에서는 예수성심의 반감이 있고, 뜰에는 성모님의 눈길이 느껴진다. 성전으로 가까이 다가가면, 입구에서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을 만나 자세를 가다듬게 된다. 성전 안에서는 25년을 준비하는 교우들의 결의를 볼 수 있다. 제대 오른쪽 벽에 걸린 배너에는 <한 알의 밀알이 되라-“밀알 하나가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남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요한 12,24)>라고 쓰여 있다.

지난해 장병욱 베네딕토 신부로부터 시작된 이 준비는 올해 부임한 송재훈 라파엘 신부가 실행하고 마무리하게 되었다. 설립 25주년 기도로 위명업이 된 교우들의 영적 봉헌은 묵주기도 10만 단을 축대로 쌓고, 성경필사와 다른 기도로 짜임새를 이룰 것이다. 그동안의 발자취를 기록하고 남겨두기 위해 대단한 역사서는 아니지만 <25년사료집>을 발간할 예정이다. 건물도 새 단장할 때가 되었으니, 방수와 도색 등 전반적인 큰 공사를 계획하고 있다. 그리고 10월에는 기념미사를 봉헌하며 매듭을 짓는다는 목표다. 지금으로서는 큰 축하잔치를 기획할 수는 없겠으나 상황에 맞게 규모에 맞게 차근차근 준비하여 올해를 수산성당이 거듭나는 도약의 해로 삼으려고 한다.

지킴이 스테파노 회장과 교우들

1996년 명례, 해양, 대성, 수산, 신호 이렇게 5개 공소가 합쳐 진영성당에서 분가하게 되었다. 스테파노 형제는 수산공소 총무를 거쳐 공소 회장을 맡고 있을 때, 수산성당을 짓게 된다. 공소시절부터 수산지킴이가 되어 정홍식 신부 때 땅을 150평 사 들이고, 김용민 신부 때 땅을 222평 보태어서 김대열 신부 때 수산성당을 건축하게 되는 과정에 온 힘을 쓰며 동참했다. 목표만큼 부지를 확보하지 못한 채 성당을 건축하게 되었는데, 그 후에도 늘 미진하게 여겼던 부지를 결국 매입하게 되었다.



스테파노 형제는 2007년부터 2010년까지 본당 사목회장을 맡으면서 기어이 101평을 매입하여 그나마 지금의 모양을 갖추게 되어, 안도의 숨을 쉴 수 있다고 한다.

수산지킴이라 어쩔 수가 없었다. 스테파노 형제는 올해 또 사목회장을 맡았고, 25주년기념추진위원장이 다. 추진위원장 직은 10여 년을 거슬러 올라가 그가 사목회장 4년 임기를 끝내면서 맡겨졌으니, 수산성당 설립 25주년은 서서히 진행해 왔고 완전 준비된 해가 되었다. 그가 펼친 노트에는 역사가 빼곡하게 담겨 있고, 땀 흘린 추억들도 따라 나왔다.

수산성당 교우들은 감자농사와 판매로 공동체 연대를 가지고, 본당 살림에도 보태었다. 처음에는 감자농사를 짓는 교우가 있어 땅을 빌려 직접 농사를 지었다. 그러면서 감자를 심어 놓은 밭떼기로 사서 추수하고 판매했다. 교우들이 팔을 걷고 나가 감자를 캐고, 손질해서 포장하여 각 본당에 가서 판매하는 열성이 대단했다. 수산의 '수미감자'가 맛있다는 소문이 나서 10년 정도 재미를 쏠쏠하게 봤고, 25주년 기금을 적립하기도 했다. 최근, 감자 흉년이 들어 수지가 맞지 않아 주춤하다가 코로나까지 들이닥쳐 감자장사는 아쉽게 개점휴업 상태다.



다른 성당도 마찬가지이겠지만, 지금은 많은 활동들이 그렇다. 대건회를 중심으로 하여 낙동 강변을 한 달에 한 번 청소하던 것도 멈추었고, 우슬라회를 중심으로 교우들에게 음식을 나누던 일도 멈추었다. 일본 싸자본당과 자매결연을 하여 오고 가던 순례의 길도 중단되었다. 이 모든 일들이 예전으로 회복되기를 고대하고 있다.



순교정신과 귀촌에서 얻는 활기

“주님께 대한 믿음으로 온 삶을 다 바친 순교자의 열이 서려 있는~”으로 시작하는 설립 25주년 기도처럼 명례성지에서 이어지는 순교정신 또한 수산성당의 자부심이다. 수산성당의 뿌리가 명례에서 뻗어 나왔고 역사의 궤를 함께하는 것이다. 명례성지조성에도 본당차원에서나 교우들 각자의 신심으로 기여한 힘이 엄청나게 크다. 여전히 많은 본당 교우들이 명례성지에서 봉사하며 그곳의 일원이 되고 있다. 복자 신석복 마르코뿐 아니라 명례성당, 명례공소를 일으키고 이끌었던 선조들의 후손들이 수산성당에서 신앙을 이어가고 있다.

작은 규모의 성당이지만 잘 돌아가고 있는 것은 귀촌한 교우들 덕분이다. 고령화를 이뤘 적막해지던 수산에 귀촌이 늘어나고 4,50대의 젊은 연령층도 눈에 띄며 활기가 살아났다. 전례분과를 맡은 보나 자매도 복음화분과를 맡은 수산나 자매도 농촌으로 들어와 살며 힘을 보태는 일꾼들이다. 무엇보다 환영하고 박수칠 일은 신학생 1호가 생긴 것. 귀촌 부모를 따라 부산교구에서 중등 예비신학생을 마치고 여기로 와서, 고교

예비신학생을 거친 뒤 광주가톨릭대학교 2학년이 된 신학생은 수산성당의 소중한 보물이다. 온 교우들이 본당출신의 첫 사제가 되도록 정성 들여 간곡하게 기도하고 있다.

마산교구와 부산교구의 경계에 놓인 '수산'은 예전에는 이리저리 치이기도 했다. 진영에 가도 어색하고 밀양에 가도 뒷전이던 때가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마산교구의 탄탄한 일원으로 수산 지역을 충실하게 가꾸며 역사를 쌓고 있다.

용서 2: 부정적인 감정 하느님께 말씀드리기

박재찬 안셀모 신부/ 분도 명상의 집

“미운 사람이 용서가 되지 않습니다. 머리로는 용서해야 한다는 것을 아는데 분노의 감정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용서했다고 생각했는데 그 사람만 보면 또 미움의 감정이 솟아납니다. 언제쯤이면 그 사람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요?”

지난 시간에 용서는 하늘 사랑을 배우는 기회라는 것과 용서를 위해서는 기다림과 침묵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침묵하는 것이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누군가에게 가서 자신의 억울함을 말하고 욕이라도 실컷 해 주고 싶어집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하고 나면 또 죄를 짓는 것 같고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 상대방도 이야기에 동조하다 보면 소위 상대방의 뒷담화(?)를 하는 것 같아 마음이 불편합니다. 그렇다고 혼자서 억누르며 참으려고 하니 분이 치밀어 올라 화병이라도 날 것만 같습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이 바로 나의 억울함과 부정적인 감정을 하느님께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많은 신실하다는 신자들 가운데에는 하느님께는 좋은 것만 말씀드리고 찬양을 해 드려야 한다고 믿는 분도 계십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자신의 부정적인 감정을 하느님께 표현해도 됩니다. “주님, 저 자매가 저에게 한 모욕적인 말과 배신에 저는 참을 수가 없습니다. 너무 화가 나고 그동안 그녀에게 잘해 주었던 것이 후회스럽고 미운 감정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제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그녀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이렇게 기도 중에, 혹은 고해성사 중에 내 안에 있는 나의 어둠을 주님께 고백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이때 주의할 것은 나의 마음의 어둠을 이야기해야지, 다른 사람의 죄를 들추어낼 필요는 없습니다. 결국 화를 내는 것도 나요, 용서하는 것도 나요, 사랑하는 것도 나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그렇게 행동했기 때문에 나는 어쩔 수 없이 지금 이렇게 분노하고 있는 것이라고 합리화하기도 하지만, 그 사람이 나에게 그렇게 말을 했지만, 내가 분노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성인聖人이라도 화는 냅니다. 그리고 미움과 증오의 감정도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분노의 부정적인 감정들을 하느님 안에서 바라보고 그분께 말씀드리기 시작할 때, 우리의 마음이 정화되고 치유와 변화를 위한 기다림의 은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궁극적으로 하느님께 더 가까이 간 이들은 하느님의 사랑과 용서의 마음을 닮아서 그분의 마음으로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더 큰 선으로 이끌어 주시는 주님의 섭리에 의탁하며 믿음을 갖고, 은총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됩니다.

토마스 머튼 신부님은 우리에게 은총이 부여되지 않는 이유 중 하나는 바로 “탐욕과 이기심으로 완고해진 의지가 은총을 거부하는 경우 우리 영혼이 더욱 완고하게 되어 버리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닫혀진 완고한 마음은 은총마저도 거부하게 할 만큼 강력하게 우리를 지배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소에 기도와 명상을 통해 자신의 마음을 비워내고 욕심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훈련을 하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에서입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은 결국 사랑하지 못하는 마음이며, 사랑하지 못하는 마음은 결국 ‘자기중심적인 사랑’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 우리에게 진정한 사랑을 보여 주신 예수님의 그 사랑에 우리가 계속해서 참여해 나갈 때, 그리고 우리 삶의 십자가의 무게를 견디어 내고 그 안에서 부활할 때, 용서는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질 것입니다. 하느님의 은총이 준비된 우리 영혼 안에 스며들 때,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나는 용서할 자격조차 없는 사람이었구나! 모든 것이 하느님의 것인데... 나의 재산도 나의 생명도 나의 모든 것이 하느님의 것인데...”라고 말입니다. 이러한 깨달음은 우리를 하느님의 사랑의 신비 속으로 들어가게 만들어 줍니다. 용서는 하느님과 함께하는 것이며 십자가의 모순을 받아들이고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는 하늘 사랑인 것입니다.

억지로 용서하려고, 혹은 용서한 척하기보다는 끊임없이 하느님께 더 가까이 가도록 하십시오. 하느님께서 주시는 평화와 기쁨에 깊이 들어가다 보면 어느 틈엔가 그 미운 사람, 나를 배반한 그 사람을 원망하기보다는 그 사람의 영혼을 위해 기도하게 되고, 그의 영혼도 주님께로 올 수 있기를 바라게 됩니다. 그 사람이 잘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생겨났을 때 용서는 완성되고 우리는 그 사람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일 립



기억할 선종 사제
조재영(안드레아) 신부
2016년 4월 15일

견진성사

일시: 4월 14일(수) 19:30
장소: 월남동성당
집전: 교구장 배기현(콘스탄틴) 주교

교구/본당

재무평의회

일시: 4월 13일(화) 10:00
장소: 교구청

상반기 교리교사 연수

일시: 5월 2일(주일)-진주·거제지구 09:30~17:30
5월 9일(주일)-마산·창원지구 09:30~17:30
장소: 마산가톨릭교육관
주제: “당신이 천주교인이오?”
강사: 김영구 요한사도 소장
(한울청소년교육문화연구소)
내용: 여름 신앙학교 프로그램 소개
대상: 주일학교 교리교사
(1, 2차 각 선착순 100명)
참가비: 1만 5천 원(참가비는 연수 당일 현금으로
받겠습니다.)
준비물: 마스크, 필기도구, 텀블러, 편안한 복장
신청: 4월 18일(주일)까지
문의: 주일학교부 055·249·7051~2
카카오톡 채널 '마산교구 청소년국 주일학교부'

▶유의사항- 본당별 초등부/ 중고등부 각각 5명 이하
로 신청 가능, '코로나19' 상황에 따라서
연수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발열, 호흡기 증상이 있으신 분은 신청을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기관/단체

마리아사제운동 평신도 체나콜로 4월 기도 모임

일시: 4월 19일(월) 13:00~15:00
장소: 교구청 1층 대강당
준비물: 메세지 책, 미사 준비
문의: 회장 010·9399·5454

기 타

2021 가톨릭교리신학원 통신(우편) 신학과정

원서접수(추가): 4월 16일(금)까지
내용: 가톨릭 신학 26과목
대상: 가톨릭 수도자 및 평신도
(만 18세 이상, 학력제한 없음)
문의: 02·745·8339
홈페이지: ci.catholic.ac.kr(원서다운가능)

마산장애인복지관 장애주간행사

•문화체험-로봇랜드
일시: 4월 17일(토)
대상: 장애아동(사례관리 대상)
•인생사진촬영
대상: 창원시민-5명(팀) 선정
참여방법: 사연공모-복지관 메일 및 SNS 신청
접수: 4월 18일(주일)까지
▶사연 선정 후 장수, 우정, 가족 사진 촬영
•장애인 인권헌장 필사

내용: 장애인인권헌장 필사, 실천다짐 쓰기,
영상 등 다양한 방법 가능
대상: 창원시민
참여방법: 4월 18일(주일)까지 홈페이지, 페이
스북, 인스타그램에 올리기
문의: 마산장애인복지관 055·247·5194
E메일- mscrc@hanmail.net
홈페이지- www.mscrc.or.kr

세월호 7주기 추모미사

일시: 4월 16일(금) 19:30
장소: 사파동성당
주최: 교구 정의평화위원회, 교구 민족화해
위원회, 교구 정의구현사제단
문의: 교구 정평위 055·261·8201

한국 평협 본당 대항 모바일 복음 쓰기 대회 생림선교본당 특별상 수상



한국 평협에서 주관하는 본당 대항 모
바일 복음 쓰기 대회는 '성 김대건 안드레
아 신부님 탄생 200주년 희년'을 기념하
며, 사순 시기인 2월 21일부터 4월 1일까
지(40일간) 실시되었다. 생림선교본당은 총
176,280점으로 전체 중 특별상(신자 수 대비
참여율 반영)을 수상하였다.

수도회 성소자 모임	일 시	장 소	문 의	비 고
천주의 성 요한 의료봉사 수도회	4월 17일(토) 14:00	서울 개화동 수도원	010·3800·1579/ vocationoh@daum.net	보건 및 복지에 관심이 있는 젊은이
작은 형제회(프란치스코회)	4월 17일(토) 15:00	칠암동성당	010·6608·3217	-

신세계 피부비뇨기과 피부질환 / 비뇨기질환 · 수술 / 전립선암 검진 진주시 동진로 172 세원빌딩 3층 (자유시장 사거리) 원장 김인구 베네딕토 055,757,9888~9	트라피스트 수녀원 100% 유기농 잼 딸기잼, 무화과잼, 귤잼 410g (포도잼은 9월 말부터 구매 가능) 본당이나 시설, 단체 등의 바자회용, 선물용 환영합니다. • 수녀원 직영 쇼핑몰 https://smartstore.naver.com/trappistshop 문의 및 전화주문 : 010-2652-0706	천차만차 대동모터스 매매 31호 모든 중고차 매매 알선 위탁 창원시 의창구 무역로 489(팔용동) 구자롱 힐라리오 안경미 세라피나 055)288-1137 010-6299-1137	가톨릭 트래블 올레길 425Km 24박 25일 제주교구 성지 7곳 순례 일정 289만원(2021년 5월 10일/ 매일 출발) 070-4086-0207 www.catravel.co.kr 반도푸드 천년을 살아온 베네딕도회 수도승들의 정통 수제 소시지 ■상담·주문: 054.971.2733 010.5194.2733 www.bundofood.com
---	--	---	---



아브라함의 계약(창세 15; 17장)

김영선 루시아 수녀/ 광주가톨릭대학교

우리의 새로운 순례지는 아브람이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의 참나무 곁에서 천막을 치고 살던 곳입니다. 헤브론은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 30Km 정도 떨어진 곳으로 서안지구에 속하며 팔레스타인 자치 정부가 관할하는 도시입니다. 바로 이곳에 아브라함과 사라, 이사악과 레베카, 야곱과 레아가 안장된 막펠라 동굴이 있습니다.

아브람이 이곳에 머물렀을 때 하느님께서 두 차례에 걸쳐서 그와 계약을 맺으셨습니다(창세 15장과 17장 참조). 이 계약은 유대인들에게도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모두 중요한 의미를 갖는 계약이기 때문에 이 계약의 배경과 내용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브람이 하느님의 말씀에 따라 하란을 떠나서 가난한 땅으로 내려온 후에도 하느님의 약속은 성취되지 않았습니다. 아브람은 실망한 나머지 자신의 종인 다마스쿠스 사람 엘리에제르를 상속자로 삼으려는 마음을 먹습니다. 이때 하느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시어 다시 한번 후손과 땅에 대한 약속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겠다는 표지로 그에게 계약을 맺을 것을 제안하십니다(창세 15장 참조). 이는 계약의 당사자들이 갈라진 짐승 사이를 지나감으로써 계약을 비준하는 방식으로 고대 사회에서 종종 이루어지던 계약의 방식입니다. 이 계약을 어기는 쪽은 쪼개 놓은 짐승과 같은 운명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창세 15,17에 의하면 쪼개 놓은 짐승들 사이를 지나가신 분은 “연기 뿜는 화덕과 타오르는 횃불”의 형상을 하신 하느님뿐이었습니다. 아브람은 깊은 잠에 빠져들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은 하느님께서 아브람과 맺은 계약이 아브람 편에서는 아무런 의무조항이 없는 무조건적인 계약이며, 하느님 편에서 일방적으로 이행의 의무를 지시는 계약임을 드러냅니다.

훗날 이스라엘 백성이 하느님의 계명을 저버림으로써 하느님과의 계약을 위반한 결과로 바빌론으로 유배를 가게 되었을 때, 그들은 창세기 15장의 아브라함의 계약에서 그들이 여전히 하느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근거를 발견하였습니다. 이 계약은 하느님께서 일방적으로, 또 무조건적으로 아브라함에게 주신 계약이므로, 그들은 이 계약에 근거하여 하느님과의 관계가 지속될 수 있다고 믿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여 그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임을 강조하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17장은 사제계 본문으로 아브람이 99세 되었을 때 하느님과 맺은 계약에 대해 전해줍니다. 하느님께서 다시 한번 아브람에게 땅과 후손을 약속하시며, 아브람이 많은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기에 그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또한 사라이의 이름도 사라로 바꾸어 주시며, 사라가 아들을 낳고, 여러 민족들의 어머니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이 말씀을 듣고 웃었습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 거듭 약속을 확인하시며, 내년 이맘때 사라가 이사악을 낳게 될 것임을 예고하셨습니다.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에게 속한 이들은 모두 이 계약의 표지로 할례를 받았습니다. 이 계약에는 모든 남자는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야 한다는 조건이 제시되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할례는 고대 이집트와 시리아, 모압, 암몬, 에돔 등지에서 널리 행해지던 관습으로 주로 사춘기 소년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필리스티아인들과 고대 바빌로니아인들은 할례를 행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할례를 강조하게 된 것은 바빌론 유배 때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태어난 지 여드레 때 시행된 할례에 대한 규정이 창세 17,12(창세 21,4 참조)과 레위 12,3에만 언급된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일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아브라함은 99세에, 이스마엘은 13세에 할례를 받았고, 아브라함의 종들도 모두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느님과 아브라함이 맺은 계약은 오직 이사악을 통하여 이어졌습니다. 약속의 계승은 할례를 통해서가 아니라 하느님의 선택과 그 선택에 대한 믿음을 통해서 이어졌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할례가 아니라 믿음을 통하여 아브라함의 후손이 됩니다(로마 4,16; 갈라 3,7 참조).